

‘쓰는 인간’의 자기 배려와 문학교육적 의미 - 영화 <비밀의 언덕>을 중심으로

홍인영*

1. 들어가며
2. 쓰기 행위와 자기 배려
 - 2-1.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
 - 2-2. 자기 배려의 수단인 글쓰기
3. ‘쓰는 인간’ 명은의 자기 배려 양상
 - 3-1. 고백적 글쓰기를 통한 수치심의 수용
 - 3-2.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상호적 글쓰기
 - 3-3. ‘읽는 인간’으로의 자리바꿈과 비판적 자기 배려
4. 자기 배려를 보여주는 인물의 문학교육적 의미
 - 4-1. 자기서사 쓰기를 하는 인물의 자기 결정 역량
 - 4-2. 교사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인물의 소통 역량
 - 4-3. 타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인물의 비판적 사고 역량
5.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글쓰기를 통해 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비밀의 언덕>의 작중인물 명은이 나타내는 특징을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자기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이 지닌 문학교육적 의의를 규명한다. 글쓰기 행위 또는 작가라는 존재가 지니는 특성은 인간 본연의 자기 이해 및 자기표현 욕구와 맞닿아있다. 문학교육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글 쓰는 인물형은 유용한 교육 제재가 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은 글쓰기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속 ‘쓰는 인간’의 면모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2장에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3장에서 명은의 자기 배려 양상을 분석하고 4장에서 자기 배려의 인물이 지니는 문학교육적 의미를 제안한다. 명은은 자기 배려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채택하여 가족에 대한 비밀을 숨기거나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발견에 이른다. 담임 교사 애란과는 편지 쓰기를 통해 수치심을 고백함으로써 타자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자기 배려의 또다른 측면을 경험한다. 명은의 기존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혜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읽는 인간’의 자리에서 비판과 투쟁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기 배려를 실현한다. 다음으로 명은과 같이 자기 배려를 나타내는 인물이 지니는 문학교육적 의미를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기 결정 역량, 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이 그것이다. 자기서사 쓰기를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자기 결정 역량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한다. 편지 형식의 글쓰기와 관련된 소통 역량은 자기 배려를 전제로 하여 진실된 태도로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이다. 타자의 글쓰기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은 외부의 자극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주체적인 관점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쓰는 인간’의 인물형은 글쓰기를 통해 욕망을 충실히 드러내면서 자기 배려의 핵심이 되는 자기와의 관계 설정 및 타자와의 관계 형성을 실천한다. 글쓰기를 통한 자기 배려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서 인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준칙과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자기 배려를 나타내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은 문학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주제어: 글쓰기, 쓰는 인간, 자기 배려, <비밀의 언덕>, 인물, 문학교육)

1. 들어가며

도처에 '쓰는 인간'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인터넷 상의 개인 공간에 누구나 손쉽게 글과 이미지를 올리고,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수시로 사용하면서 짧은 글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 현상은 비단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글쓰기는 언제나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명확하고도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따라서 글쓰기 행위나 글을 쓰는 사람이 문학작품과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글쓰기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비밀의 언덕>(2023, 이지은 감독)의 인물 명은이 나타내는 특징을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자기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이 지닌 문학교육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문학이나 영화에서 글을 쓰는 인물 혹은 글쓰기 행위는 빈번한 소재이다. 한국소설로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1966), <지배와 해방>(1977), 이승우의 <생의 이면>(2005), 김영하의 <옥수수와 나>(2011) 등이 있고, 영화로는 <미저리>(1991, 원작은 스티븐 킹의 『미저리』(1987))나 <파인딩 포레스터>(2000)부터 <카포티>(2006), <어톤먼트>(2008, 원작은 이언 매큐언의 『속죄』(2001)), <패터슨>(2017)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꾸러나가는 이야기의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인물이 지닌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많은 독자와 관객들에게 감흥을 준다. 이는 글쓰기 행위 또는 작가라는 존재가 지니는 특성이 인간 본연의 자기 이해 욕구 및 자기표현 욕구와 맞닿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글 쓰는 인물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문학교육은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글 쓰는 인물은 의미 있는 교육 제재로 활용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영역의 '성격'에서는 “다양한 문학 경험과 활동을 통해 (...)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문학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문학은 “학습자가 작품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에 공감”¹⁾하게 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제시한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문학작품을 읽는다면 그 안에는 인간과 세계의 보편적이면서도 다종다양한 속성을 함의하는 인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을 쓰는 인물 유형은 글쓰기 행위가 지니는 인간 본연의 존재론적인 욕구를 드러내며 인물이 쓰는 글의 내용이 또 하나의 풍부한 의미를 담는 형식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적 제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문학교육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경험이 작품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쓰기(창작)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쓰는 인간’의 인물 형은 그 자체로 학습독자가 자신을 투영해 쓰기 행위를 통한 ‘자신의 성찰과 타인에 대한 공감’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

본고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 ‘쓰는 인간’을 분석하는 이론적 방법론으로 푸코의 자기 배려 개념을 사용한다. 자기 배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나 주의를 넘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자 자신에게 가하는 일련의 생활 수칙, 책임, 기술을 뜻한다²⁾는 점에서 인간의 삶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양식이 된다. 그리고 푸코에 따르면 자기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이 글쓰기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쓰기는 이미 알고 있던 의미를 재구

1)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22, 135쪽.

2)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동녘, 2016, 183-184쪽.

성하게 하면서 자기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영혼을 정성 들여 돌보게 한다. 따라서 영화에 나오는 글쓰기를 수행하는 인물의 갈등과 성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연구대상은 영화 <비밀의 언덕>이다. 이 영화는 첫째, 글쓰기를 주요한 소재로 삼는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아이들이 거짓 또는 진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글짓기를 활용한다. 글짓기는 자신의 욕망, 수치심, 인정 욕구 등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매개가 된다. 둘째, 글쓰기가 수행되고 글쓰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집과 학교라는 점에서 문학교육의 대상인 청소년 학습자의 생활세계와 맞닿아 있다. 영화는 가족, 친구, 교사 등 청소년기에 의미 있는 타자의 자리에 놓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 영화는 자기 배려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문학교육적 의미를 논의하기에 적합하다.

선행연구는 자기 배려 이론을 다룬 논문들에 대해 검토했는데 글쓰기와 자기 배려의 관계를 다룬 연구, 그리고 영화의 인물을 자기 배려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을 검토하였다.

첫째, 자기 배려를 글쓰기와 연관지은 논문은 다음과 같다. <대학 글쓰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기 내러티브 글쓰기를 실행하고 결과물에서 자기 성찰 및 자기 배려의 의증이 어떤 과정을 통해 표현되는지 살펴본 연구³⁾, 노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자서전 쓰기 활동의 결과를 분석할 때 자기 배려 개념을 참조하여 자서전에 나타난 주체의 행위와 목적, 소통 가능성을 논의한 연구⁴⁾, 도덕교육에서 자기 배려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

3) 김정신·채연숙,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으로 본 자기 성찰 글쓰기 탐색1 - K대학교 <대학 글쓰기> 수강생들의 내러티브 글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4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275-296쪽.

4) 이혜경, 「노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의미 연구 -인문도시지원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영주어문』 제41권, 영주어문학회, 2019, 529-552쪽.

데 하나로 자기탐구보고서 쓰기를 제안한 연구⁵⁾가 있는데 자기 배려 이론의 심층적인 적용보다는 다양한 글쓰기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 성찰적 글쓰기에 내재한 자기 배려의 의미를 탐구하고, 자기 배려로서의 글쓰기 교수법으로 조원 간의 상호 보완성과 의존성이 강한 2인 1조 공동 글쓰기를 제안한 연구⁶⁾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했지만 정작 자기 배려의 개념과 공동 글쓰기 행위의 접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이 범주의 연구들 중 정신장애 에세이에 대해 자기 배려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에 주목할 만하다. 정신장애인 에세이 서술에 나타난 특성을 자기 배려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한 연구⁷⁾는 자기에 대한 집중, 자기 돌봄, 증상을 다스리는 방법과 윤리적 실천의 측면에서 푸코가 글쓰기를 자기 배려의 중요한 수단으로 언급한 점에 착안하였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ADHD, 공황장애, 거식증, 조현병을 고백하는 여성 정병리(‘정병’은 정신병을 줄인 말이며, 영어 접미사 ‘~er’을 붙여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병리’라고 칭하면서 많이 쓰이게 되었다.) 서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대상으로 서사의 미학적, 사회적, 정치적 가능성을 살핀 논문⁸⁾은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성 정신장애인의 자기 서사 쓰기가 지니는 자기 배려적 성격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시킨다.

5) 이연수, 「자기 배려 방법으로서 자기탐구보고서 쓰기 사례연구」, 『초등도덕교육』 제60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7-230쪽.

6) 양근용, 「자기 배려로서의 글쓰기」, 『인문학연구』 제18권,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3-21쪽.

7) 안상원, 「자기 배려로 살펴본 정신장애 에세이의 서술 양상 연구 — 리단,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와 정지음, 『젊은 ADHD의 슬픔』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21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141-171쪽.

8) 김은하, 「여성 정병리의 소수적 감정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78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17-550쪽.

이상의 연구들 모두 푸코가 자기 배려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중요하게 언급한 점에 주목했으며 글쓰기 결과물에 드러난 자기 배려의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도 글쓰기가 주제인 영화를 분석하는 데 자기 배려를 이론적 분석틀로 사용하고 있어 선행연구들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다만 자기 배려를 문학교육의 원리로 적용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영화에 나타난 자기 배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영화 <설국열차>에서 규율과 질서의 닫힌 세계에 있던 인물의 자기 배려를 통해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하는 양상을 다룬 논문⁹⁾은 푸코 사상이 주목하는 주체성의 교육적 의의를 밝힌다. 자기 배려의 개념은 이창동 영화의 인물을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버닝>의 종수가 보이는 인간 존재론적 예술관의 자리 배려적 실천¹⁰⁾, <시>의 미자가 실천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 쓰기를 통한 자기 배려¹¹⁾ 등에서 확인된다. 작중인물이 나타내는 자기 배려의 모습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되 앞선 연구들에서 자기 배려가 영화를 분석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의 위치를 차지했다면 본 연구는 인물의 글쓰기 행위에 나타나는 자기 배려를 논문 전체의 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은 2장에서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에 대해 논의하고 쓰기 행위와 자기 배려 이론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3장에서는 명은이 보이는 자기 배려의 양상을 분석한다. 4장은 3장의 분석을

9) 성하영, 「영화 「설국열차」에 대한 교육적 분석: 푸코 사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3권 1호, 인문사회 21, 2022, 71-82쪽.

10) 정병기, 「영화 <버닝>에 나타난 인간 존재론적 예술관」, 『현대영화연구』 제15권 2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9, 101-120쪽.

11) 채희주·민경원, 「이창동 영화에 표현된 개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122-129쪽.

토대로 그와 같은 특성이 지니는 문학교육적 의미를 밝힌다.

2. 쓰기 행위와 자기 배려

2-1.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

‘자기 배려’로 번역되는 ‘epimeleisthai heautō’라는 동사형은 ‘자기 자신을 돌보다, 배려하다, 보살피다’를 의미한다.¹²⁾ 푸코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자기 배려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대표적인 도덕 계율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gnōthi seauton)’를 언급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푸코가 고대 시기의 계율에 이론적 근거를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기를 다스리는 기술들 대부분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는 교육과 교습의 테크닉, 의료와 심리학적 테크닉에 통합되어버렸는데¹³⁾ 그 이유는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자기’를 인식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인식되고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실체로서의 ‘자기’가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푸코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 전통이 결정적이라고 본다.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자기와 맺는 관계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신과 맺는 관계들로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푸코는 그리스도교 탄생 이전 시기, 즉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되돌아가 자기와 관계 맺는 기술들을 발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푸코는 과대평가된 ‘자기 인식’의 그늘에 가려 잊히고 평가절하된 개념,

12) 미셸 푸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말하기』,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동녘, 2024, 34쪽.

13) 미셸 푸코, 앞의 책, 2016, 122쪽.

즉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을 발굴한다.¹⁴⁾

다시 돌아가 ‘너 자신을 알라’를 살펴보면 이 계율은 철학적 원칙이기 전에 신탁 상담을 위한 규칙이었다. 즉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푸코에 따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계율에 종속된다. 소크라테스는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보다 자기 자신을 돌봄으로써 도시국가 자체를 돌볼 수 있도록 가르쳤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델포이의 계율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전념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¹⁵⁾

‘너 자신을 돌보라’라는 원리의 최초의 철학적 구상은 <알키비아데스>에서 발견된다.¹⁶⁾ 이 계율은 자신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려고 계획하는 알키비아데스가 도입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었고,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가 자신의 영혼과 의지를 맡기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다.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가 스스로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답법을 통해 통치자에게 필요한 덕을 교육했다. 알키비아데스가 맞서 싸우려는자인 스파르타의 왕은 지혜, 정의, 절제, 용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알키비아데스는 무지하고 늙은 노예(페리클레스)에게 맡겨져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알키비아데스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테크네(technê)를 획득해야 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에게 자기를 점검하는 기술로서 자기 배려의 중요성을 말한다.¹⁷⁾

14) 위의 책, 105쪽; 242-243쪽.

15) 미셸 푸코, 앞의 책, 2024, 34-35쪽.

16) 위의 책, 72쪽.

17) “네가 원하는 삶이라면 상황은 심각하고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에피멜레이스타이 세아우토(Epimeleisthai seautô), 즉 너 자신을 배려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이 표현이 이 텍스트에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다. 자기 자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계율이 ‘나쁜

그렇다면 ‘자기 배려’의 두 가지 핵심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배려해야 하는 ‘자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를 배려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가 그것이다. 우선 자기 자신은 재산, 의복, 도구처럼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다. ‘자기’는 자신의 재화와 도구, 신체를 사용할 능력을 갖춘 것인 자신의 영혼을 가리킨다. 이 영혼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구성 요소가 동일한 거울 속을 응시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속한 신성한 요소 내에서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신성한 요소를 통한, 이 신성한 요소 내에서의 영혼의 명상 속에서 정의로운 행동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정치적 행동의 규칙을 설정하게 될 원리와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¹⁸⁾

다음으로 자기를 배려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의 전향(ad se convertere),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생활에서의 운동(그리스어 표현으로 ‘eis heauton epistrephein’)을 가리킨다. 에피스트로페(epistrophè)라는 개념은 플라톤주의의 전형적인 주제이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에게 종용하는,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이 운동은 플라톤에 따르면 시선과 눈이 “높은 곳”, “신성한 것”, “본질, 본질이 보이는 하늘 위의 세계로 이끌리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자기 자신을 향유하기, 자기 자신과 더불어 즐거움 취하기, 자기 자신 내에서 즐거움 찾기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런 형태의 사유에서 자기와의 관계는 내적인 목적에 따라 방향이 정해진다.¹⁹⁾

소크라테스는 “네가 무엇인지 모르면 너는 너 자신을 돌볼(배려할) 수

교육’, ‘부실한 교육’과 직결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이 자기 배려의 의무가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 요컨대 젊은이가 정치 생활에 투신하는 특정 시기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위의 책, 78쪽.

18) 위의 책, 78쪽.

19) 위의 책, 94쪽.

없다, 그리고 이 자기 인식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네 진정한 속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방법으로 너는 너 자신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겠니?”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알키비아데스>의 종반부까지 자기에 대한 정의, 반성성, 주체성에 대한 정의나 기술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신체와 대립되는 영혼에 관한 이론이 발견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이 자신을 배려할 때 신체, 부 혹은 의복이나 신발 등을 배려해서는 안 되고 영혼을 배려해야 한다. 영혼은 신체 내부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실체가 아니다. 영혼은 뒤나미스(dunamis), 즉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자 능력이다.²⁰⁾ 영혼을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사회에서 자신이 담당하고자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사회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글쓰기를 성장의 계기로 삼는 영화의 인물을 분석하면서 분석의 이론적 근거로 자기 배려의 개념을 사용한다. 다음 절에서 쓰기 행위와 자기 배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2-2. 자기 배려의 수단인 글쓰기

푸코의 자기 배려는 외부의 권력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푸코는 자기 배려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글쓰기를 강조했다. 글쓰기가 자기 배려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글을 쓰는 행위가 곧 자신을 관찰하고 돌아보고 기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배려하는 행위는 권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출발점이 된다.

20) 위의 책, 190-191쪽.

서구의 철학적 전통에서 글쓰기에 담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기라는 특성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기 수양 방법의 하나가 휘포르네마타(hupomnêmata)라고 부르던 일지(수첩) 쓰기였던 것이 그 증거이다. 이 일지에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독서한 것, 대화를 나눈 내용, 미래의 명상 주제들을 메모했다. 또한 그들이 꿈과 매일매일의 일과를 기록했다.²¹⁾ 여기에는 하루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쓴 글을 타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도 자기 배려의 중요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편지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타자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타자는 지도자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으며 조언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효한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 이러한 편지 쓰기의 실천이 확산됨과 동시에 자기에 대한 경험은 바로 이 사실로 인해 강화·확대된다. 편지 쓰기를 위해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일상생활, 건강과 기분의 미세한 변화, 신체의 불편함, 정신의 활동, 독서의 수행, 기억나는 인용구, 이러저러한 사건들에 대한 성찰 등이다. 이 기록을 통해 자기와 관계를 맺는 일정한 방식과 일련의 경험의 장이 가시화된다.²²⁾

세네카가 루킬리우스에게 친구 아들의 죽음에 관한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은 “이 편지를 죽은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보고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루킬리우스에게도 교훈을 주어 그가 이 교훈을 자신의 아들이나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세네카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은 자신을 위한 수련이기도 했다. 글쓰기는 세네카가 삶,

21) 미셸 푸코, 앞의 책, 2016, 119쪽.

22) 위의 책, 119-120쪽.

죽음 등에 대해 자신이 알던 진실(진리)을 재활성화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²³⁾ 또 다른 사례인 아엘리우스 아리스티데스의 『성스러운 담론』²⁴⁾은 아스클레피오스, 즉 건강의 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로 이루어졌다. 아리스티데스는 10년 이상 아팠는데 흥미로운 점은 자신을 구해준 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이 텍스트에서 그가 아팠던 10년여 동안 자신이 꾸 수 많은 꿈을 기록해놓았다는 사실이다. 300여 개가 넘는 운문을 포함한 독특한 형식의 이 텍스트는 아리스티데스의 질병뿐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에 관한 일기이다. 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 범주 내에서 자신의 병, 불편함, 고통, 다양한 감정, 전조가 되는 꿈, 조언을 주는 꿈, 시도해야 할 치료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병에 대한 체험을 표현했고 자기 수양을 실천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고대 제정 시대의 자기 배려는 특수한 철학적 교의 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계율인 동시에 진정한 실천이라는 점이다. 이 시대의 자기 배려는 그 체제, 규칙, 방법, 기술, 수련을 갖춘 실천이다. 그것은 또한 개인적인 경험의 양식, 표현 수단과 형식을 갖춘 개인의 경험이자 집단적 경험이기도 했다.²⁵⁾

이처럼 글쓰기는 자기 배려의 훌륭한 수단이 된다. 본 논문에서 영화 속 인물의 갈등은 현실의 가족과 불화하는 자신의 마음을 마주한 데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현실과 자신의 이상이 어긋나는 것에 수치심을 갖는 한편 수치심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면서 자아는 혼돈에 빠지는데 이러

23) 미셸 푸코, 앞의 책, 2024, 87쪽.

24) Ælius aristide, *Discours sacrés*, trad. fr. A.-J. Festugière, Paris, Macula, 1986. Cf. M. Foucault, "Les techniques de soi", *Dits et écrits II: 1976-1988*, éd. D. Defert et F. Ewald, avec la collaboration de J. Lagrange, Paris, Gallimar, 2001, p.1623, 미셸 푸코, 앞의 책, 2016, 120쪽에서 재인용.

25) 미셸 푸코, 위의 책, 120-121쪽.

한 위기의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글쓰기이다. 영화에서 명은은 글쓰기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타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자기 배려를 실현한다.

3장에서는 명은이 보이는 자기 배려의 양상을 쓰기 행위, 타인과의 관계 형성, 비판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세 가지 분석 기준은 자기 배려 이론과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상호 조화하여 도출한 것이다. 자기 배려의 중요한 수단이 글쓰기라는 점, 명은의 글쓰기와 편지 쓰기가 학교의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전학을 통해 새롭게 발생한 관계인 혜진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 독자의 자리에서 비판적 성찰을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3. ‘쓰는 인간’ 명은의 자기 배려 양상

3-1. 고백적 글쓰기를 통한 수치심의 수용

명은이 보이는 자기 배려는 글쓰기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영화는 명은이 선물에 붙일 리본을 고민하는 장면을 지나 제목이 화면에 뜨고, 명은이 담임 선생님께 쓰는 편지를 비추며 시작한다. “제가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선생님에게만 건의하고 싶은 비밀이 있어서예요. 이 비밀은 선생님만 아셔야 해요. 그것은요... 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하는 선생님과 면담을 교실에서 말고 선생님 연구실에서 한 명씩 하면 어떨까요. 왜냐 하면...” 영화의 제목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 편지에도 나온다.

명은은 비밀을 갖고 있는 아이이자 최선을 다해 자신이 비밀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려는 존재이다. 친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공개된 교실이 아닌 선생님과 자신만 알아야 하는 면담 내용은 무엇인가? 이 영화는 명은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이 명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즉 명은의 자기표현이 영화의 핵심을 이룬다.

명은은의 글쓰기의 근간이 되는 가족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다. 명은은 숨기고자 하는 비밀은 가족이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 형편’처럼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정확히는 부모님의 몸에 밴 속물적 생활 태도와 자신에 대한 인정의 부재를 명은은 숨기고 싶어 한다. 명은은 흔히 그 나이 또래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아버지의 직업은 말쑥한 양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정을 따뜻하게 돌보고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상)을 기대하지만 현재 명은의 가족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식구가 둘러앉아 계를 먹다가도 부모님은 가격 때문에 상대방에게 편잔을 주거나(“뭐가 맛있어. 비싸기만 하지. 곱창에 소주나 먹자니까. 니네 아빠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니네 아빠는 십원을 절약할 줄을 몰라.”) 텔레비전에 나오는 불우 이웃 돕기에 참여하는 명은에게 “저기 전화하고 싶으면 엄마 손 좀 봐봐.” “너네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도 다 힘들게 살았어.”라고 통명스럽게 거절하고, 가훈을 묻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말하는 부모님을 명은은 도저히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다. 경제적 궁핍이 잠식해버린 가정에서 정서적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명은은 소외감을 느낀다.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은 한시도 느슨해지지 않아서 꽤나 명석한 딸이 학급 반장 선거에서 반장으로 당선된 소식을 전할 때에도 “너 반장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엄마가 학교에 꼬박꼬박 찾아가야 되지, 뭐 행사 때마다 갖다 바쳐야 되지, 선

생님한테 선물도 줘야 되지. 반장보다 반장 엄마가 바쁜 게 반장이야. 그런 건 한가한 엄마들이나 하는 거지.”라며 무려 반장 자리를 무르라고 한다. 명은은 부모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힘만으로도 돋보일 수 있는 학교생활에 총력을 기울인다.

명은이 부모에게 실망하는 순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가]

(엄마 경희가 생선을 구운 식용유를 그냥 하수구에 버린다.)

명은: 이거 바다 오염되잖아.

경희: 아, 됐어.

(…)

명은: 우리 종량제 봉투도 없지?

경희: 야!

명은: 아, 왜 이렇게 막살아!!

[나]

(TV에 아프리카 기아 아동을 돕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성호: 우리나라 사람이나 도와주지 맨날 저런 거나 보여주고.

경희: 딴 거나 봐.

명은: 계속 봐 그냥.

성호: 저런 건 뭐하러 보냐 쓸데없이.

경희: 7번 봐, 7번.

(아빠 성호가 채널을 돌리자 명은이 벌떡 일어나서 채널을 다시 돌리고, 전화를 든다.)

경희: 빨리 끊어 돈나가.

자기 배려의 차원에서 보면 명은은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윤리적인 관

념과 실천상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다.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연령대이며 윤리관의 준수를 통해 자기 배려를 실천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노동과 살림살이가 힘든 부모에게 명은이 지키려고 하는 도덕이나 윤리는 사치와도 같다. 바다가 오염되는 일이나 생명부지의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은 당장 내 가족의 안온한 생활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부모의 책임감은 명은 남매와 이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지만 명은이 그것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 명은의 눈에 가족들은 자기 배려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이 괴리는 사춘기 소녀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현실의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명은이 선택한 것은 글쓰기이다. 영화에서 명은의 글은 담임 교사에게 쓴 편지와 우체통에 넣는 쪽지를 제외하고 총 다섯 차례 등장한다.

	글의 성격과 제목	글 본문
①	반장 선거 공약 연설문	수많은 공약들, 그동안 얼마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늘 반장 회장을 맡아오던 사람들이 바꾼 게 무엇입니까? (...) 저는 지킬 수 있는 공약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밀 우체통'을 우리 반에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말 못 할 비밀을 적어주시면, 제가 선생님과 함께 비밀리에 토의를 하여 여러분의 답답함과 고민이 해소되도록, 우리 반에 소외된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도록, 그런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반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②	교내 환경보전 글짓기 대회 우수상 수상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겨뿜겨 나올 때, 목구멍이 따가워 신음하는 하늘의 기침 소리를./ 어제는 선택을 받고, 오늘은 버림을 받은 초라한 쓰레기들이 토해내는 서글픈 울음소리를./ 배 속에 노오란 기름과 하얀

	<p>거품으로 가득 찬 물고기들의 죽어가는 거친 숨소리를. 우리 모두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필시 사람도 병에 걸렸나봅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병입니다.</p>
<p>③ 교내 평화 글짓기 대회 우수상 수상작 (“통일도 한 걸음부터”)</p>	<p>우리 집 가훈은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부모님께서서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그 첫 시작은 작은 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휴전협정을 맺은 이래 43년간 휴전 상태입니다. 43년은 제가 약 네 번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이렇듯 통일은 계란으로 바위 치듯 매우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 어려운 한 걸음을 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걸음은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일단 관심을 갖게 되면, 몰랐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조차 갖지 않으면, 문제는 쓰레기처럼 방치될 뿐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굳이 통일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답을 찾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에 TV 만화를 보는 대신에 북한 땅이 보이는 통일 전망대에 다녀왔습니다.(…)</p>
<p>④ '가정의 달 기념 성원시 어린이 글짓기 대회' 입선 수상작 (“Happy birthday to 가족”)</p>	<p>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은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9월 20일, 저는 매년 제 생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생일에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정말로 많은 축하와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하루일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이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의 첫 번째 뜻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고, 두 번째 뜻은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족은 매일같이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눕니다. (…) 아마도 이 오폭이를 응원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에너지를</p>

	<p>주고, 반대로 5월 8일 어버이날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념일이 없다면 오펝이는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정의 달엔 꼭 값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를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p>
<p>⑤ ‘가정의 달 기념 성원사 어린이 글짓기 대회’ 대상 수상작 (“손녀로부터 온 편지”)</p>	<p>할머니 저 손녀 명은이에요. 오늘도 하늘이 티끌 한 점 없이 맑네요. 가끔씩 문득 할머니가 살고 계신 하늘을 바라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할머니가 절 내려다보고 계실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린답니다. 할머니도 알고 계시죠? 선생님께 종종 할머니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말이에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께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없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할머니라면 저를 용서해주실 것 같아 할머니 핑계를 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p> <p>할머니, 가족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가족은 물음표예요. 세상엔 수많은 가족의 보기들이 넘쳐나는데 우리 가족만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빠는 놀기만 좋아하고 게을러요. 단 한 번도 가게의 문을 먼저 열어본 적이 없어요. 오징어젓, 명란젓, 맨날 싸주는 것갈 반찬도 정말 창피해요. 다른 아빠들은 다 바쁘다는데 우리 아빠는 매일 잠만 자고 놀러다니요. 양복 대신에 무거운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구두 대신 더러운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서류 가방은 없고요. 가게에 갈 때마다 자고 있는데 정말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빠보다 더 창피한 것은 엄마예요. 모자와 장화를 신고 다니고 옷은 늘 더럽거든요. 엄마는 사람들의 시선이 창피하지 않은 걸까요? 엄마는 돈밖에 몰라요. 친구를 위한 마음도 없고 환경을 보호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입만 열면 우리 앞에서 아빠 욕을 해요. 교양도 없어 말할 때마다 귀청이 따가워요. 사실 오빠가 엄마 아빠 욕하는 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빠가 늦게 일어나 나갈 때마다 욕을 했고 엄마가 오빠 방에서 아빠와 나, 아빠의 식구들, 외할아버지, 외삼촌, 돈 빌리러 온 친구, 돈을 사기치고 간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욕을 할 때마다 귀찮고 짜증난다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 앞에선 효자인 척해요.</p>

	<p>저는 지금 외할머니네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전 엄마에게 피가 섞이지 않은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욕만 들으며 자랐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가 두 사람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 돌아가셨다고 했고 사실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의 떡살을 잡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에겐 장점도 많이 있어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세요. 예쁘게 도시락도 싸주고 제 계획표를 모두 맞춰주세요. 제가 불쌍한 사람을 돕도록 하고, 우리 가족과 불우이웃을 위해 기도를 하며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크고 환경을 보호해요. 삼촌은 막노동을 하지만 저를 만나러 올 땐 일부러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멋있게 하고 와요. 전 한 번도 삼촌에게 티를 내지 않았지만 삼촌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우린 막내들끼리라 텔레파시가 통하나봐요. 왜 외삼촌과 외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걸 우리 엄마 아빠는 못하는 걸까요? 왜 나의 입장을 생각해주시 않는 걸까요? 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웃고 싶었어요.</p>
--	--

다른 네 편의 글이 명은의 내레이션 형태로 영화에 등장하는 것에 비해 ‘① 반장 선거 공약 연설문’은 그것을 낭독하는 명은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제시된다. 명은은 관중이자 유권자인 친구들에게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또박또박 연설을 한다. 몇 번이고 연습했으리라 예상되는 정성어린 명은의 태도와 함께 꼬깃꼬깃한 연설문 메모, 전날 집에서 애를 쓰며 만든 비밀 우체통, 배경음악 등은 명은의 강한 인정 욕구와 더불어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인간의 분투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최선은 연설문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다. ‘과거 임원들의 공약 미이행 비판 → 현상의 원인 진단 → 자신의 공약 선언 → 비밀 우체통의 의미 강조’ 이와 같은 구조로 매끈하게 이어지는 연설문은 흠잡을 데 없으며, “소외된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포부에서 명은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급에서의 소외에 대한 언급은 사실 명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선생님과 공개 면담을 힘들어 하는 자신, 부모님의 직업을 밝히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소외된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장면에서 명은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대하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은 연설이 끝나고 미소 짓는 명은의 표정을 지나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출 때이다. 관중은 친구들 세 명. 즉 지금까지의 장면은 반장 선거 연설 '연습'이었다. 명은에게 반장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한날 학급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선다. 자신이 반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친구들과 우리 학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연설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연설을 할 때 소품은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고 임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존재 증명의 자세는 명은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②와 ③은 명은의 글쓰기 과정과 명은이 쓰는 글의 특징을 드러낸다. 영화는 명은이 써낸 글의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을 찬찬히 따라간다. 우선 명은은 글짓기 대회에 맞춰서 글을 쓰기 위해 주변에서 소재를 찾는다. 환경 보전 글짓기를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동네에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살피고, 평화 글짓기 대회에 제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직접 통일 전망대를 방문해서 휴전선 너머를 들여다본다. 뿐만 아니라 명은은 자료 조사와 수집도 철저하게 하는 편이라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쌓아놓고 읽는다. 그리고 실제 글쓰기에 돌입하면 사전을 찾아가며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고친다. '서글프다'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숙고하는 모습에서 명은의 진정성이 돋보인다. 이상의 장면들은 글쓰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라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로 초등학생 글짓기의 정석을 보여준다.

이토록 성실한 과정을 거쳐 써낸 글은 나무랄 데 없는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환경 보전 글짓기에 낸 작품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을 반복하면서 수사적인 기교를 보여주고, 환경 파괴의 현실과 무관심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교하는 매끄러운 구성으로 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자는 주제를 강조한다. 평화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글은 모범적인 제목(“통일도 한 걸음부터”)과 그에 걸맞은 내용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가훈을 질문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아빠), 그리고 “있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엄마)였지만 명은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가훈을 상정하고(“우리 집 가훈은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그 첫 시작은 작은 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한다.

공교롭게도 두 편의 글, 그리고 앞선 반장 선거 공약 연설문까지 세 편의 글 모두에서 명은은 ‘관심’을 글의 중심에 놓는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명은이 골몰하는 삶의 주제가 관심이라는 점이다. 명은은 가족의 관심, 정확히는 부모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인물이다. 경제 활동에 전념하느라 표현이 다소 살갑지 못한 부모의 모습은 명은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한다. 때문에 반장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된 명은이 비밀 우체통을 들고 뛰어가거나(그림 1) 환경 보전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뛰어가는 장면(그림 2)은 명은의 존재 증명에 대한 욕구를 잘 보여준다.



[그림 1]



[그림 2]

그러나 부모님의 반응은 명은의 기대와는 달라서 반장이 되었을 때 그것을 무르라고 했던 것처럼 우수상을 타왔어도 아빠는 “봐봐. 우수상이야? 최우수상을 타야지.”라고 말해 명은은 실망하고 만다. 반장이 어떻게 됐냐고 묻는 질문에 “어떻게 되긴. 투표로 되지. 이걸 1등하는 애도 못하고 반장 했던 애도 못한 거야.”라고 하거나 우수상을 탄 것에 대해 아빠가 “겨우”라고 말하자 “글짓기 학원도 안 다니고 처음으로 글을 써본 건데, 상 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명은의 소외감과 피로가 느껴진다. 명은은 이 가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엄마와 아빠는 명은이 힘들게 설득시켜서 자신의 세상을 이해시켜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다시 세 편의 글에서 나타나는 ‘관심’이 지닌 특징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특징은 명은의 윤리지향적 가치관이다. 어떤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인데, 여기에는 관심을 갖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이 깔려있다. 즉 명은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전제로 글을 쓰며 이러한 낙관주의는 모범적인 해답에 가깝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데 모범적인 해답을 지향하는 글쓰기가 되다 보니 주제가 다르더라도 글의 내용이 엇비슷하고 결과 역시 진부해지기 쉽다. 물론 초등학교 단계의 글쓰기에서 마치 전문 작가의 글처럼 특출난

개성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이 연령대가 보편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고 성장 중에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모범성, 윤리성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명은의 모범적인 글은 한마디로 교과서나 훈화 말씀과도 같아서 자칫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개성이 없을 수 있다. 또한 개성 없음은 비판적 사고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명은은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보다는 ‘흠 잡히지 않을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④에서도 이어진다. 가정의 달 기념 글짓기라고 하자 명은은 그동안 해 온 대로 ‘가정의 달’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어른에게 질문하고(“삼촌 가정의 달은 왜 있는 거야?”/ “사람도 일년에 한번 짝은 생일을 축하해주잖아? 가족도 그런 거지. 가족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대단한 거니까.”), 다소 평이한 대답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명은의 공고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혜진 자매와의 만남이 발생하고 명은은 드디어 그동안의 글과는 다른 글(⑤ “손녀로부터 온 편지”)을 쓰게 된다.

이 글은 명은이 진실을 털어놓는 최초의 공간이다. 첫 번째 진실은 그동안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께 할머니가 아프다고 말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다. 사실은 엄마가 장사하느라 바쁜 것이고 반장인 딸에게 신경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엄마가 반장 엄마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명은은 할머니 간병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엄마의 모습을 숨긴다. 두 번째 진실은 명은이 자신의 가족을 “물음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물음표에는 적나라한 감정이 포함된다. 게으르고 매일 젓갈 반찬만 싸주는 아빠, 양복을 입지 않고 운동화가 더러운 아빠, 엄마 덕분에 “그지꼴을 면하고” 살 뿐인 책임감 없는 아빠가 “창피”하다. 옷차림이 더럽고, 돈밖에 모르고, 친구의 도움 요청에 면박을 주고, 명은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을 돕지도 않고, 환경 보호에

관심이 없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자식 앞에서 남편을 욕하는 엄마는 “아빠보다 더 창피”하다. 그리고 오빠는 동생 앞에서 이런 엄마와 아빠를 욕하며 부모님 앞에서는 “효자인 척”을 해서 명은의 눈에는 한심하고 이중적으로 보일 뿐이다. 이런 가족을 피해서 잠시 함께 지내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 명은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준다. 명은은 왜 자신의 엄마, 아빠, 오빠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지 의문을 가지며 이러한 가족들의 태도를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글은 편지 형식으로 쓰였으며 편지의 수신인은 할머니이다. 할머니는 명은이가 거짓말에 끌어들인 대상이자 “저를 용서해주실 것 같”은 존재이다. 즉 명은은 자신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내밀한 고백이 용서 받을 일, 곧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은의 괴로움과 자기 발견이 시작된다. 가족은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이며 자식에게 부모란 부정의 감정을 갖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부모를 부정하면서 성장하기 마련이다. 명은은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슬한 거짓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사실을 외면해왔지만 이제 그것을 직면하기로 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선택했다. 글쓰기는 자기를 배려하고 수양하는 방법으로 기능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을 재배치하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거나 통치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스도교에 이르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발견되는 관념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덕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데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어떤 저항도 있을 수 없는 통치권의 제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제어를 자기 자신에게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²⁶⁾ 글쓰기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배려

26) 위의 책, 191쪽.

라는 수단이자 목표를 상정하게 한다. 명은은 ‘부모와 형제를 창피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을 똑똑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명은이 이와 같은 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에 깃든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이는 곧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길이다.

글쓰기를 통한 명은의 자기 배려는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의 회복으로도 이어진다. 위의 ⑤ “손녀로부터 온 편지”로 대상 수상자가 되었지만 비밀을 드러낼 수가 없기에 수상을 포기한 명은은 ④ “Happy birthday to 가족”로 입선만을 수상한다. 성원시민회관에서 상장을 받은 명은은 이내 며칠간 떠나온 집을 향해 달려간다. 명은이 도착한 곳은 부모님이 일하는 것갈가게이다.

명은: 아빠 나 성원시민회관에서 엄청 큰 시상식장에서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상 받았어.

이제 티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문집에도 나올 거래.

성호: 우리 딸 대단하네.

영화의 초반에 명은이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왔을 때 시큰둥하던 반응과는 다르게 아빠는 곧바로 칭찬을 하고 엄마는 어쩐지 울먹이는 듯한 얼굴로 웃는다. 부모의 직업도, 가정형편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큰 변화가 생겼으니 명은은 진실을 고백하는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명은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알게 된 부모 역시 자식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자기 배려가 지닌 유용성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자신을 배려하고 그 결과로 타인에게 유용함이 주어질 때,

그것은 타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푸코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라는 자신의 직업을 훌륭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특별히 말하지 않았으며 다만 훌륭한 스토아주의자가 그래야 하듯 하루 동안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점검할 뿐이었다. 그의 처신은 호네스투스 비르(honestus vir), 즉 성실한 인간으로서의 삶이었고 실존에 내재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황제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게 되었다.²⁷⁾ 명은은 특별히 엄마, 아빠에게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가족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한 생활의 일면이자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유용성으로 나아갔다.

3-2.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상호적 글쓰기

3-1.에서 명은이 실천하는 글쓰기 행위에 나타나는 자기 배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3-2.에서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자기 배려를 분석한다. 관계를 맺는 대상은 담임 교사이며 본 절에서도 명은의 '쓰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영화에서 담임 교사 애란은 명은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애란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은 명은이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이때의 독립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한다. 명은에게 가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이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지향점이 달라 갈등을 겪는 대상이며, 그렇지

27) 미셸 푸코, 앞의 책, 2024, 232-233쪽.

만 가족을 부정하는 것 역시 명은의 자기 실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런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명은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고 자신이 꿈꾸는 자아상을 축조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에서 명은은 반장도 하고 학급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자아충족감을 얻는다. 명은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 수줍어하지 않고 사교성도 좋은’²⁸⁾ 인물이다. 명은의 사회생활에서 담임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선 명은의 재능을 발견해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촉진자이다. 글쓰기 대회에 나갈 것을 제안하고 명은의 비밀 우체통 학급경영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권위는 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족한 모습을 가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 명은이 지각을 하는 담임 교사를 위해 교장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나 명은의 수상 축하 현수막 앞에서 부뚱해하는 장면에서는 애란 역시 명은처럼 아직 성장이 진행 중인 한 명의 인간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극의 후반에서 명은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명은과 애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은 영화에서 명은이 거짓말을 하는 대상이 주로 애란이라는 점이다. 우선 면담 시간에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명은은 아버지는 “종이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은 명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명은은 이와 같은 거짓말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를 가져야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기 배려의 측면에서 보면 명은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이었다. 진정한 자기 배려는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말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어야 한다.

28) 이지은·김혜리·김혜정·김중혁, 『비밀의 언덕 각본집』, 클, 2024, 170쪽.

가정 환경에 대한 거짓말에 이어서 명은의 또 다른 거짓말은 반장 선거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밀 우체통의 사연을 꾸며내 마치 여러 명이 사연을 쓴 것처럼 가짜 쪽지를 위조한 것이다. 담임 교사는 “그래도 반 친구들이 명은이를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애?”라고 말하며 명은의 반장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을 내비치고 명은은 더욱더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거짓을 행한다. 이처럼 거짓말로 점철된 관계라는 뜻은 담임 교사가, 명은이 그만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담임 교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거짓말이 유지되려면 그 거짓이 학급 내의 교우 관계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회사원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를 입증하기 위해 명은은 연고가 없는 회사 앞으로 찾아가 숙제라고 하며 마치 기자처럼 인터뷰를 시도하고 사진을 찍으며, 어렸을 때의 소꿉친구 집에 놀러가 친구 엄마가 재봉틀을 하고 쿠키를 굽는 모습을 역시 사진에 담아온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명은의 앨범에 담겨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가상의 가족이 만들어진다. 이쯤 되면 명은이 거짓을 능청스레 재연하는 연극배우로 보일 정도이다. 명은은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아이이다. 글쓰기의 하나로 이야기 짓기, 허구서사 만들기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명은의 거짓 지어내기는 작가로서의 소질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작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지면 위로 제한된다. 풍부한 상상력은 작품 속에서 펼쳐야 한다. 영화에 나타난 명은의 깜찍한 연기는 자신의 실제 삶을 숨기고 거짓을 진실로 내세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않으며 자기 배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명은의 연극은 오빠에 의해 종식되며 “너 그때 고깃집에서 도망간 거, 엄마 아빠가 모를 것 같애? 엄마 아빠 바보 아니야.”라는 말을 통해 명은은 거짓말을 하는 자기 자신, 부모를 창피해하는 자기 자신을 직면한다.

다시 담임 교사와의 관계로 돌아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지니는 교육

을 둘러싼 특수한 관계 형성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가정의 달 기념 성원시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솔직하게 쓴 글(“손녀로부터 온 편지”)로 상을 받게 된 명은은 그러나 이 글이 공개되었을 때의 파장을 떠올리며 대상 수상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애란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은 대화를 하기 위해 빈 교실에 ‘ㄱ’자로 나란히 앉는다. 이 구도는 애란과 명은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유지했던 구도로서 명은의 이야기를 수평적으로 듣고자 하는 교사의 태도를 드러낸다. 상을 받지 않겠다는 명은에게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서 그런 것이냐고 물으며 달래도 보고(“명은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남의 동시를 베껴서 낸 적이 있었어. 그때는 그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줄래? 선생님은 명은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선생님이잖아.”), 엄포도 놓아보지만(“그냥 받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을게. 이거 빨리 얘기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쪽에서 정말 다 취소해버릴지도 몰라.”) 명은은 좀처럼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급기야 강하게 대치하는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서다가 다시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이어간다.

명은은 애란과의 대화에 진실한 마음으로 임한다. 곧장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고 교사와도 공유한다. 애란은 먼저 명은의 속사정을 추측해서(‘글이 발표되면 일기장이 공개되는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다’) 질문함으로써 명은의 대답을 이끌어내고, 곧이어 ‘솔직한 생각은 독자를 감동시킬 것이고 더 특별한 것이다, 선생님이 명은이라면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명은을 설득한다. 자신을 설득시키려는 교사의 노력에 명은은 조금씩 제 생각을 내비친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고 묻자 “아무도 모르는 얘기”라고 답하거나 “선생님. 저 솔직히 상은 받고 싶은데 공개는 안 하

고 싶어요. 근데 전화해보니까 그게 안 된대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명은의 마음이 교사를 향해 열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명은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에 진심으로 공감한 교사가 상을 받지 말라고 말한다. 상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교사의 마음 씀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그러자 명은은 비로소 가족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다며 솔직하게 밝힌다. 푸코는 타자의 도움 없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다²⁹⁾고 말한다. 혼자 힘으로 자신이 처한 스투티티아(stultitia,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³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으며 누군가가 그를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³¹⁾는 세네카의 말을 빌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자기 배려에 지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로는 가족 관계, 보호 관계, 연령과 교양, 상황 등이 유사한 두 사람의 우정 관계, 유용한 조언과 존경의 표현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관계 등이 있다.³²⁾ 명은에게는 애란이 자기 배려의 실천을 돕는 지원자이다.

이후 두 사람은 비밀 우체통을 사이에 두고 쪽지를 써서 대화한다. 구어의 대화에서 문어의 대화로 옮겨가는 이 장면은 글쓰기가 갖는 진실 전달 하기의 힘, 자기표현의 힘과 더불어 관계 형성의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축적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비밀 우체통은 또한 종이에 글을 쓴다는 점 외에 '비밀로 전달한다' '오직 열쇠로 문을 여는 한 사람만 그 글을 볼 수 있

29) 미셸 푸코, 앞의 책, 2024, 65쪽.

30) L. A. Sénèque, *Lettres à Lucilius, t. II, V*, trans. H. Noblot, Paris, Les Belles Lettres, 1945, pp.41-46,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1981-1982,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164쪽에서 재인용.

31) 미셸 푸코, 위의 책, 164쪽.

32) 미셸 푸코, 앞의 책, 2024, 66-67쪽.

다'라는 특징을 갖는다. 명은은 지금 교사에게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는 교사에 대한 특별한 믿음과 의지하려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자신의 상태를 봐주기를 바라는 호소까지 담아서 비밀 우체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그러한 명은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 명은이 쪽지에 글을 써서 우체통에 넣기까지 기다려주고, 그것을 명은이 선택한 방식을 따라 열쇠로 열어서 꺼내본다. “제 솔직한 마음 때문에 가족이 상처 받을까봐 겁나요…”라고 쓴 명은의 쪽지에 대해 교사는 역시 자신도 글로 써서 대화를 이어 나간다. “명은이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교사의 응답에 명은이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가로젓자 애란은 명은의 눈이 확 뜨이는 말을 한다.

애란: 명은아, 명은이 마음이 정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이해할게. 상은 취소해도 돼. 억지로 솔직해질 필요 없어. 솔직한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야.

명은: 솔직한 게 좋은 거잖아요.(선생님을 빤히 바라보는 명은)

애란: 선생님 생각에는 중요한 거는 솔직한 것보다는 차라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야. 명은이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명은: 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 정말 싫어요.

애란: 그걸 썼구나.

(명은이 고개를 끄덕임.)

명은: 근데 (잠시 정적)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억지로 솔직해질 필요가 없으며 솔직한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애란의 말은 그동안 솔직하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명은에게는 놀랍게 느껴진다. 애란은 곧 “솔직한 것보다는 차라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명은의 마음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애란이 이 대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신념과 학생인 상대방을 진실되게 대하는 마음, 학습자의 개별적인 상황 맥락을 존중하고 그것을 최우선에 두는 태도이다. 그리고 이 태도는 명은을 감화시켜 가슴 밑바닥에 있는 말,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며 가족이 싫지만 마음이 정말 불편하다는 것을 토로하게 한다. 명은의 이 말은 영화가 시작한 지점을 나타낸다.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역시 부끄러워지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기 인물이 갖는 수치심을 표현한 이 영화는 글쓰기를 통해, 그리고 타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명은이 어떻게 이 수치심을 돌파해 가는지 보여준다. 편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경유해서 도달하는 자기 수양의 방편이다. 영국의 역사가 에릭 로버트슨 도즈에 따르면 고대 문화에는 수치심의 문화에서 죄의식의 문화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거리낌(*scrupule*)의 문화가 있었다. 수치심의 문화가 집단의 압력이 윤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문화라면 죄의식의 문화는 신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리낌의 문화는 집단이나 여론의 압력도 아니고 신에 대한 죄의식도 아닌, 두 사람의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관여된 감정이다.³³⁾ 거리낌의 문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식은 두 사람 사이의 편지로서 위 장면에서 명은과 애란이 쪽지를 통해 공유하는 감정은 수치심과 거리낌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는다. 명은은 애란과의 필담을 경유해서 자기 배려를 실천한다.

33) 위의 책, 247-248쪽.

3-3. ‘읽는 인간’으로의 자리바꿈과 비판적 자기 배려

‘쓰는 인간’ 명은의 자기 배려 양상 분석의 마지막은 혜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판과 투쟁의 기능이다. 이 절에서 명은은 혜진 자매의 글을 읽는 입장이 되며 자기 바깥에 놓인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다. 독자로 자리바꿈하여 외부의 필자를 접하면서 자신의 글쓰기, 나아가 글을 쓰는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기 배려의 기회를 얻는다. 감독이 혜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영화 <아가씨>의 표현을 빌려 ‘명은이를 망치러 온 구원자’³⁴⁾라고 표현한 것처럼 혜진이 등장하면서 명은의 세계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비밀 우체통의 거짓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고, 명은의 글쓰기 실력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니게 되며, 이는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명은에게 진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글쓰기에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곧 ‘삶에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인가? 왜 진실해야 하는가? 나는 왜 거짓을 말하게 되는가?’라는 질문과 뼈아픈 자기성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은은 진정한 자기 배려를 보여준다.

혜진은 서울에서 온 전학생으로 명은의 학급에 배정되고 이란성 쌍둥이라고 소개된 하얀도 같은 학교의 다른 반에 전학 온다. 혜진은 전학 온 첫날 자기소개를 권하는 교장 선생님의 말에 이름만 간단히 말하면서 “전학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건(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용자) 필요 없더라고요.”라고 한다든가 사회 시간에 ‘우리 고장에서 일하는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저희 아빠는 없고요. 저희 엄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가씨 골목에서 사장님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눈에 띄는

34) 이지은·김혜리·김혜정·김중혁, 앞의 책, 161쪽.

발언으로 명은의 시선을 붙잡는다. 혜진 특유의 솔직함은 반장 명은이 운영하는 비밀 우체통에 넣은 쪽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우리 반에 작은 도서관(명은이 반장이 된 후 제안하여 운영하는 것-인용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책을 읽는 친구는 아무도 없네요… 그럼 이미 책을 읽은 친구가 왜 이 책이 재미있는지 추천의 이유를 써서 책 앞에 붙이거나 게시판에 책 소개란을 붙이면 어떨까요? 그럼 책을 안 읽던 아이들도 흥미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라고 쓴 것이다.

이 쪽지는 명은에게 두 가지 충격을 준다. 하나는 자신이 제안한 작은 도서관이 학급 친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에게 이제 막 학급의 일원이 된 외부인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부끄럽다는 점이고, 둘째는 혜진의 건의사항이 제법 신선하고 그럴 듯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글도 잘 쓰고 똑똑하여 학급 내에서 신임을 받던 명은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위기에 놓여 질투가 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심리가 복합적으로 섞인 결과는 쪽지를 보고 그것을 주머니에 구겨 넣는 명은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혜진에 대한 명은의 견제는 혜진이 비밀 우체통에 사연을 많이 써서 넣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고 자기 쪽지가 없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명은은 혜진의 글을 만난 초반에는 그것을 외면하는 형식으로 맞선다. 사실 비밀 우체통도, 작은 도서관도 원래 학급 친구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며 명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단지 담임 교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거짓 쪽지를 써서 채워 넣기까지 하면서 명은은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축조했고 그 안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혜진의 등장으로 그 세계의 진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고 그 방법은 공교롭게도 명은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글쓰기였다. 명은에게 혜진은 눈엣가시로 다가온다. 혜진에 대한 견제는 투쟁의 형식을 띤 명은 나름의 자기 배려이다. 자기 배려가 지니는

투쟁의 기능은 개인이 일평생의 삶을 마치 투쟁처럼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는 것을 뜻한다. 푸코는 자기 실천을 “항상적인 투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주체에 대한 이론에서 격투기의 은유(‘인생에서 우리는 격투기 선수처럼 계속 적들을 물리쳐야 하고 싸움이 없을 때도 계속 훈련을 해야 한다’)와 전쟁의 은유(‘자기는 언제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을 수 있는 군대처럼 조직되어야 한다’)가 빈번한 것을 통해³⁵⁾ 이를 설명한다.

이제 영화는 명은이 혜진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쓰는 인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관계 맺으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 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혜진은 명은처럼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에 소질이 있지만 명은과는 다르다. 평화 글짓기 대회에 제출한 글을 쓰기 위해 명은이 평화와 관련된 책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그것을 공부하듯 읽으며 “연필을 너무 많이 쥐어서 굳은살”이 박일 만큼 ‘숙제, 일기장, 독후감, 편지, 엽서, 글짓기’를 하는 데 반해, 혜진은 자매인 하얀과 함께 취향에 맞는 문학 책 『홍길동전/박씨부인전』을 여유롭게 읽고 글짓기 준비도 한 시간 정도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과정을 통해 완성한 글은 표면적으로는 우수상(명은)과 최우수상(혜진 자매의 협동 글쓰기)이라는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고, 글의 내용에서도 모범적인 교훈을 담고 있지만 진부한 명은의 글과 생동감 있는 비유와 개성, 무엇보다 솔직함이 돋보이는 혜진 자매의 글이라는 차이를 낳는다.

영화에서 혜진 자매의 글은 두 차례 제시된다.

35) 미셸 푸코, 앞의 책, 2016, 115쪽.

글의 성격과 제목	글 본문
① 교내 평화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 수상작("점심 시간")	<p>우리 자매에게 있어 평화는 점심시간이다. 학교를 전학 갈 때마다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대는 소리는 소리 없는 공격. 우리의 작디작은 심장엔 커다란 구멍들이 생겼다. 더 어릴 적 우리는 매일매일을 전쟁하며 살았다. 전쟁의 이유는 부모님의 이혼과 엄마의 직업. 우리는 전학을 다니며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과 매일 전쟁을 했고, 매일 보이지 않는 총알을 맞았고, 매일 피를 흘렸다.</p> <p>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선생님의 중재에 따라 억지로 화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다시 싸울 테니까. 왜 꼭 억지로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 대신해 우리만의 평화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지를 계획한다. 이제부터 이 원고지엔 우리만의 평화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p>
② '가정의 달 기념 성원시 어린이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 수상작("우리는 진짜 이란성 쌍둥이가 아닙니다")	<p>그녀들은 사실 친자매가 아니다. 혜진의 엄마는 하얀의 엄마의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 중 한 명이였다.</p> <p>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것이 아니다. 아빠는 손님이었으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혜진은 진짜 엄마랑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하얀의 엄마는 혜진을 딸처럼 키우고 있지만, 알고 보면 진짜 엄마는 아닌 것이다.</p> <p>교장 선생님은 그녀들과 그녀들의 엄마에게 그냥 이란성 쌍둥이라고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엄마의 직업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그럼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전학을 안 다녀도 될 것이라고 말이다.</p> <p>하지만 혜진은 숨기고 싶지 않다. 또다시 아이들이 혜진을 따돌리더라도, 교장 선생님한테 찍히더라도, 혜진은 하얀이와 지금의 엄마에게만큼은 자신을 지켜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싶다. 고마움을 잊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숨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 <p>하얀이와 엄마가 혜진을 세상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곳에 숨기지 않았듯이, 앞으로 혜진도 그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p>

① “점심 시간”과 ② “우리는 진짜 이란성 쌍둥이가 아닙니다”의 공통 주제는 혜진 자매의 특별한 가족 관계이다. 먼저 ①에서는 ‘평화 글짓기 대회’의 주제와 연결 짓기 위해 ‘평화, 전쟁, 싸움, 통일’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전쟁 및 통일과 자신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써냈다. ‘소리 없는 공격’, ‘커다란 구멍’, ‘보이지 않는 총알’, ‘우리만의 평화’ 등의 표현으로 두 글감을 연결하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전학 경험과 가족의 사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점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②는 보다 직접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다룬다. 글짓기 대회의 주제부터가 ‘가정의 달 기념 글짓기’이기 때문에 혜진 자매가 즐겨 다루는 소재에 적합하다. 1인칭 시점으로 쓰인 ①과는 달리 3인칭 시점을 사용한 이 글은 담담하게 사실을 서술하는 문체(“그녀들은 사실 친자매가 아니다.” “(...) 알고 보면 진짜 엄마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혜진은 숨기고 싶지 않다.”)로 인해 오히려 더욱 강도 높은 고백으로 느껴진다. 또한 글의 제목이기도 한 ‘이란성 쌍둥이’와 관련하여 교장 선생님이 강제한 명명에 대해 언급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숨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쓴 부분에서는 자신들에게 편견을 갖는 세상의 시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주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혜진 자매의 글은 이처럼 솔직함과 뚜렷한 주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명은의 글과는 차이를 갖는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킨다는 점에서 혜진 자매의 글은 파레시아(parrêsia)³⁶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글쓰기가 자신들의 존재 증명을 위

36) 파레시아는 영어로는 통상 ‘프리 스피치 free speech’라고 번역되고, 프랑스어로는 ‘솔직하게 말하다’라는 뜻의 ‘프랑 파홀레 franc-parler’라는 표현을 쓴다. 어원적으로 파레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할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할 자유를 의미하는 ‘pan-rêsia’이다. 파레시아는 자유이자 의무로서 개인의 상황, 개인의 신분, 대화 상대자의 윤리적 자질과 관련되고,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해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 자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테오레티케(theôrêtikê)³⁷⁾로서의 자기 배려이기도 하다. 이는 명은에게 부족했던 특성이기 때문에 명은은 혜진과의 만남과 갈등 이후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 성찰이 곧 자기 배려의 비판적 기능이다. 사실 푸코가 말한 비판의 기능은 '배운 것을 버리는 것(de-descere)'으로서 '악습들, 군중과 나쁜 스승 그리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 그릇된 의견들로부터 해방'³⁸⁾되는 것에 가깝다. 즉 자기 배려를 함으로써 외부의 그릇된 것을 배제하고 좋은 것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자신과 다른 타자의 특성을 인식하고 그것의 수용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여 변화의 계기를 삼는다는 의미로 비판의 개념을 사용한다. 명은은 혜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혜진의 삶의 태도나 글쓰기 방법 자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혜진이라는 자극을 통해 자신이 맺고 있던 자기 관계를 점검하고 자신의 방식에 맞게 변화했다. 따라서 비판의 성격을 지닌 자기 배려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화에서 혜진은 명은의 비교 대상으로서(솔직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준비를 해서 글을 쓰는 명은 ↔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혜진) 마냥 무결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혜진은 자신의 솔직함이 글짓기 대회 수상 전략이라는 것까지 파악한, 노련한 작가이다("그냥 자기 얘기 솔직히 쓰잖아. 그럼 선생님들은 감동 받아서 상 주시거든. 지금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도 내포한다. 미셸 푸코, 앞의 책, 2024, 255-257쪽.

37) 에피테토스가 테오레티케를 통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능력이 능력으로서 무엇인지 알 가능성이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부적절한지 알 가능성이다. 테오레티케는 예를 들어 문법이나 글 쓰는 기술처럼 그 능력을 사용할 경우, 글쓰기나 플루트 연주 등과 같은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할 적절한 때와 적절하지 않은 때를 결정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위의 책, 242~243쪽.

38) 미셸 푸코, 앞의 책, 2016, 115쪽.

모든 학교가 그랬어.”). 엄마가 술집을 운영한다는 사실,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가정환경, 그로 인한 술한 전학과 따돌림의 경험 등 혜진은 특수한 상황의 당사자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고 그것이 자신의 글쓰기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활용한다. 상주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려는 초등학생의 노련함이 편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혜진에게 가치 판단의 잣대를 직접 갖다 대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관객의 고민은 글쓰기에서의 경험의 역할과 진실함의 정도로 옮겨간다. 첫 번째 질문, 혜진과 같은 사연을 갖고 있지 않다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인가? 작가라면 경험치가 부족할 경우 당사자성을 갖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다. 부족함 없는 매끈한 현실은 실제의 생활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소위 방구석 샌님 취급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여성 인물 ‘조제’에게 남자친구가 호감을 갖자 전(前) 여자친구가 “네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 게 부러워.”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심리이다.(이 영화에서 조제는 “그럼 너도 다리를 잘라.”라고 말하는 냉소를 보인다.) 명은 역시 혜진의 말과 행동, 혜진의 글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나는 혜진 만큼의 경험이 없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글로 써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 지점에서 영화는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극적인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개별적인 경험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의미화하는가에 있다고 말한다. 혜진의 글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 지니는 특수함과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노골성이 아니라 혜진이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명은 역시 그 지점을 잘 파악하여 자신이 지닌 자기 나름의 수치를 진솔하게 드러내게 된다.

두 번째 질문, 글쓰기에서 솔직함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혜진 자매는 솔직한 글쓰기를 하고 명은 역시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솔직한 글쓰기("손녀로부터 온 편지")를 해낸다. 솔직함과 진실됨은 물론 최고의 가치이며 이 논문에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이론인 자기 배려 이론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다만 글쓰기에서의 솔직함이란 간단명료하게 늘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다. 솔직하게 씀으로써 작가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고통을 노출함으로써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솔직함은 어디까지나 재고해야 할 부분이며 이것은 글쓰기의 상황마다 달라진다. 그렇다면 '쓰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자기 배려란 무조건 솔직한 태도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솔직함의 정도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태도에 가깝다. 그리고 글쓰기 행위 자체가 이와 같이 세심하고 내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이다. 인간은 '쓰는 인간'이 됨으로써 자기 배려를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배려를 하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활용하기도 한다.

4. 자기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의 문학교육적 의미

앞서 3장에서는 명은의 글쓰기 행위에서 나타나는 자기 배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학습자가 자기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로부터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³⁹⁾, 이 역량을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겠다. 첫째는 명은의 글쓰기에서 두드러

39) 이때 '학습자가 역량을 함양'하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비밀의 언덕> 또는 '쓰는 인간'의 인물형이 등장하는 또 다른 영화를 감상하는 상황을 뜻한다. 즉 학습자가 문학수업시간에 영화 감상을 통해 글쓰기를 하는 인물로부터 이 하에서 논의하는 세 가지 역량을 강화하는 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4장의 핵심이다.

지는 자기서사의 특성에서 말미암은 자기 결정 역량이다. 둘째는 명은이 글쓰기를 중심으로 담임 교사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소통 역량이다. 셋째는 헤진 자매의 등장으로 갈등 상황에 놓인 명은이 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이다.

이 세 가지 역량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과도 맞닿는다. 자기 결정 역량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상의 역량은 자기 성찰·계발 역량으로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⁴⁰⁾이라고 정의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 역량은 성찰과 계발을 전제로 하되 자기 배려의 핵심인 자기 이해를 보다 강조한 역량이다. 다음으로 소통 역량과 관련되는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점·조정하는 능력’⁴¹⁾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 역량은 교육과정상의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⁴²⁾이라는 의미를 상당부분 공유하며, 주체적인 관점과 독창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외부의 자극(영화 속 헤진 자매와 같은)이 주어진다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하에서 각 역량을 중심으로 문학교육적 의미를 논의하겠다.

40)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15, 123쪽.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 자기 성찰·계발 역량’에 대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역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41) 위의 글, 122쪽.

42) 위의 글, 122쪽.

4-1. 자기서사 쓰기를 하는 인물의 자기 결정 역량

영화에서 명은이 갖춰나가는 자기 결정 역량은 자기서사 쓰기와 연결해서 논의하겠다. 자기서사는 인간의 내면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문학치료학에서 출발하여 문학교육학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개념이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탐구와 문학작품에 대한 탐구가 상호작용하면서 문학에 대한 이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본다.⁴³⁾ 문학교육에서 자기서사는 이해와 표현, 수용과 창작의 영역에서 모두 작동한다.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배경에 학습독자가 개별적으로 지닌 자기서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해 및 수용의 차원이고, 학습자가 '나'라는 인간을 성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서사로 쓰는 것은 표현 및 창작의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자기서사 쓰기는 자기와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자기 배려가 “자기 자신 안에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기로 전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자기와 일정한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⁴⁴⁾고 했을 때, 자기서사 쓰기의 과정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재배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자기 배려에 크게 기여한다.

3장에서 분석했듯이 명은에게 글쓰기는 처음에는 사회적 인정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지만(명은은 글쓰기에 소질이 있으며, 글짓기 대

43) 문학치료학과 문학교육학에서의 자기서사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신동훈, 「문학을 통한 '나'라는 문학의 발견과 미적 실현- 자기서사를 축으로 한 문학의 탐구와 교육 -」, 『문학교육학』 제84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24, 151-207쪽; 강미정, 「문학교육 현장에서의 자기서사 진단 검사 도구 활용과 그 전망 - 20대 중반 대학원생의 자기서사탐색사례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제44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39-72쪽.

44) 미셸 푸코, 앞의 책, 2024, 61쪽.

회에서 상을 받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낀다.) 여러 차례의 글쓰기 경험과 삶의 경험을 거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자기서사를 쓰는 데로 나아간다. 명은은 자기서사 쓰기를 통해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깬다. 이 영화의 감독은 GV(관객과의 만남)에서 “감독님은 수치심을 어떻게 다루고자 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해 “명은이로 하여금 그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심을 겪게 하고 싶었어요.”라고 대답했다.⁴⁵⁾ 명은은 글을 쓰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수치심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다. 거짓과 솔직함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곧 명은이 자기 결정 역량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자기 결정 역량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하는 역량, 즉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명은은 글쓰기를 통해서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가족을 넘어서는 범위인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명은의 자기 결정 역량이 드러나는 또 다른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다. 학년이 바뀌어 6학년이 된 명은이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가정환경 조사서를 바라본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라고 쓰고 직업 칸에는 ‘젓갈가게’라고 쓴다. 교실로 장면이 바뀌고 애란이 아닌 남자 교사가 테니스 채를 만지작거리며 앞에서 말한다.

남자 담임: 어제 내준 가정환경조사서 다 가져왔지?

아이들: 네.

남자 담임: 다 꺼내.

45) 이지은·김혜리·김혜정·김중혁, 앞의 책, 2024, 146쪽.

(아이들이 종이를 꺼내자)

남자 담임: 뒤로 뒤집어.

(아이들이 모두 종이를 뒤로 뒤집는다.)

남자 담임: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들 가정환경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 다만 너희들이 궁금한 거지. 지금부터 앞에 있는 종이에다 자기에 대해 자유롭게 써보는 거야. 자신의 좌우명, 꿈,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성격, 장점, 단점, 콤플렉스, 친구 생일. 쓸 거 너무 많은데? 선생님이 한 학년 동안 알아야 할 것도 좋아. 정 쓸 거 없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러브레터 쓰든가. 자 자유롭게 한 번 써봐. 시작.

담임의 말이 끝나자 명은이 밝은 얼굴로 핑크색 사인펜을 꺼내들고 그림을 그리고, 카메라는 그런 명은을 꽤 오랫동안 비춘다. 무엇을 그리거나 쓰는지 관객은 알 수 없다. 오직 명은의 표정만 보여주는데 대단히 집중한 표정으로 한참을 그리거나 쓴다. 영화 내내 줄곧 원고지의 칸을 채우며 글을 쓰던 명은인데 자기에 대해 자유롭게 써보라고 했을 때 그리기의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은이 그동안 스스로를 속박해온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지에는 문자가 지닌 규정이나 규칙을 넘어서는 표현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6학년 담임 교사가 말하는 “자신의 좌우명, 꿈,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성격, 장점, 단점, 콤플렉스, 친구 생일”은 자기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며, 어쩌면 ‘가정 환경’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의 명은은 가정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것에 묶어두면서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그 혼란기를 치열하게 통과한 끝에 성숙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이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 장면은 명은의 자기 결정 역량 함양을 돕는 교사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영화의 분석을 통해 말한 자기 결정 역량은 앞서 언급했듯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역량이다. 자기 결정의 개념은 푸코가 자기 배려 이론을 주장할 때 기대고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의 자율적 자기 수양과 관련된다. 자기 수양은 좀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 새로운 실존의 유형 등등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차원의 것이었다.⁴⁶⁾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자기 수양은 이를 테면 생활의 엄격함이나 규율의 차원으로 구체화되며 글쓰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하고 글의 형태로 써나가는 자기서사 쓰기는 자기 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것은 결코 민법이나 종교적 의무에 의해 개인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다. 개인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자기 결정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실존의 선택이자 삶의 방식의 선택이다. 그런데 개인은 무슨 이유로 삶의 방식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인가? 고대인의 믿음에 따르면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나 사후의 영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예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즉 고대의 개인은 실존의 미학을 동기로 삼아 자기 결정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정리하면 인간이 배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술 작품이자 미학적 가치와 테크닉을 적용할 대상은 자기 자신, 자신의 삶, 자신의 실존이다. 이에 따르면 자기 자신은 예술 작품으로서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자기가 관계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의 마지막에 고유의 자기에 도달하게 된다. 죽게 되는 순간, 혹은 체험할 것이 거의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전 생애를 조각해

46) 미셸 푸코, 앞의 책, 2016, 167-168쪽.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을 때 그 추억의 강렬한 빛으로 인해 타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목표가 되는 바고 또 바로 그 순간 개인은 자기 자신을 실제로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는 자기 자신의 창조물로 여겨져왔다. 이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든다는 관념이다.⁴⁷⁾ 자기서사 쓰기와 자기 결정 역량의 함양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자기 결정 역량의 바탕이 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기',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여기기'와 같은 관념이 자기서사 쓰기를 추동하고, 또한 자기서사 쓰기를 하다보면 스스로의 삶에 보다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자기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등 자기 결정 역량이 강화된다. 영화 속 명은과 같이 자기서사 쓰기를 하는 인물, 자기 결정 역량을 지닌 인물을 통해 학습독자는 자기 결정 역량을 함양하는 데 감화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기 배려가 바탕이 된 자기 결정 역량은 문학교육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기서사 쓰기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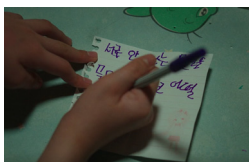
4-2. 교사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인물의 소통 역량

명은이 담임 교사 애란과 맺는 관계는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며, 이때 글쓰기가 큰 매개 역할을 한다. 둘 사이에는 늘 편지가 존재한다. 명은이 면담을 교사 연구실에서 한 명씩 하자고 말하는 것도(그림 3), 학급의 비밀 우체통에 명은이 넣는 가짜 쪽지도(그림 4), 대상 수상 문제로 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말을 거는 것도(그림 5)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7) 위의 책, 184-186쪽.



[그림 3]



[그림 4]



[그림 5]

면담을 혼자 하고 싶다는 내용, 반장으로서 학급의 변화를 바라지만 친구들의 참여는 저조한 현실로 인해 자신이 직접 친구들로 위장하여 희망 사항을 적는 행위, 그리고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받기 어려운 사정이 실은 가족의 비밀이라는 것까지 명은은 애란에게 내면의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전한다. 이것은 담임 교사 애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편지는 단 한 명의 독자를 상정하는 글쓰기로서 그 독자가 자신의 글을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읽으리라는 신의가 없으면 저자는 편지를 쓸 수도, 쓴 편지를 보낼 수도 없다. 명은은 애란의 교육관과 인간으로서의 태도를 신뢰해서 편지를 발송했고, 애란은 그에 화답하듯 명은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간다. 비록 면담을 혼자 하고 싶다는 내용은 수락되지 않았고 가짜 쪽지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명은의 발화 의지(‘저는 가정환경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생님과 단둘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반장의 책임을 충실히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생활을 만들고 싶어요.’)는 애란에게 닿았으며 이렇게 형성된 라포르를 바탕으로 갈등 신에서 애란이 명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을 하면서 쪽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문학교육에서 지향하는 의사소통 역량은 앞서 교육과정을 검토하면서 언급했듯이 언어, 기호, 매체의 활용 능력을 포함하며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점검 및 조정 능력을 가리킨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소통 역

량은 진실된 태도로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진실된 태도는 자기 배려를 전제했을 때 가능하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숨김없이 표현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명은과 애란이 주고받은 편지 형식은 푸코가 자기수양을 가능하게 하는 글쓰기의 두 양태 중 하나로 꼽은 것이다. 하나는 앞의 4-1.에서 논의한 자기서사에 가까운 항상적인 기록이며 다른 하나가 바로 서신 장르이다. 타자가 현전하는 서신은 글을 읽을 독자인 타자를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소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주는 발설의 기쁨, 청자(서신의 수신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 교류와 타자 배려의 충족감은 서신 장르에서 고유하게 획득할 수 있는 효과이다. 예컨대 세네카의 서신들에서는 자기 집 주변을 산책한 것에 관한 묘사를 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네카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한편으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은 죽고 없는 한 친구의 저택을 바라봤다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나서 세네카는 자신의 느낌, 자신의 신체적인 느낌, 자신이 공기를 호흡한 방식, 바다 공기가 천식으로 인한 자신의 호흡곤란을 완화시킨 방식, 지금은 세상을 떠난 친구의 별장을 보았을 때 떠오른 추억 등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진정한 기술이다.⁴⁸⁾ 또한 아우렐리우스는 하루에 행한 일을 점검하고 그것을 편지에 적어놓았다. “귀가 후 자기 위해 모로 돌아놓기 전, 내가 한 일을 펼쳐 늘어놓으며(meum pensum explico) (...) 탁월한 내 스승께 내 하루를 보고합니다.”라고 했는데 ‘explico’는 아우렐리우스가 행한 모든 것이 쓰인 두루마리이다. 펼친다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의식의 점검을 뜻한

48) 위의 책, 193쪽.

다. 하루가 끝날 무렵, 잠자리에 드는 순간 그는 사유를 통해 자신의 과업, 즉 하루 동안 해야 할 일과 한 일을 점검한다. 이것은 책 혹은 메모장의 은유이고 그는 자신이 하루 동안 한 일을 살펴보고 프론토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 이 의식 점검에서 회상한 것을 편지로 썼다.⁴⁹⁾ 이상의 사례에서 편지의 글쓰기는 타인에게 자기 배려의 과정과 결과를 알리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푸코가 예시로 든 사례처럼 명은도 애란에게 자신을 점검한 결과를 전달했다. 또한 명은의 대사에서 드러나듯 평소에는 하루하루를 기록한 일기도 담임 교사에게 제출했을 것이다. 명은과 애란의 관계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편지라는 글쓰기 방식이다. 학습독자는 명은과 같이 주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인물을 통해 자기 배려가 전제된 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한편 편지 형식의 또 다른 교육적 효과는 자기수양의 비결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 배려 이론에 따르면 편지는 자기서사로 쓴 내용을 공유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썼고, 좋은 비결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좋은 테크닉들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논설들을 썼는데, 이를테면 플루타르코스가 <영혼의 평정에 관하여>라는 논설을 쓴 것은 친구 폰다누스에게 부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논설의 이 순간에, 자네가 영혼의 평정에 관해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다네.” “나는 자네가 다급하고 매우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고 자네가 영혼의 평정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 하지만 자네를 위해 특별한 논설을 쓸 시간이 없다네.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영혼의 평정에 관해 내가 사적으로 적어놓은 것들을 보내네.” 그는 영혼의 평정에 관한 여러 조언과 성찰, 인용, 예들을 사적으로 적어놓았던 수첩을

49) 미셸 푸코, 앞의 책, 2024, 249~254쪽.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적인 수첩을 폰다누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테크닉, 개념, 실천 등등의 작은 세계이고, 그것들은 여기저기로 순환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수양의 자율적 실존이다.⁵⁰⁾ 문학교육에 적용한다면 '편지쓰기를 통해 소통 능력을 키우는 인물'을 보고 학습독자가 자신의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직접 편지 쓰기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겠다. 강조할 점은 첫째, 자기서사 쓰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형성에서 진실성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독자(수신자)가 분명하게 상정된 편지를 씌으로써 글쓰기의 내용이 곧 타자와의 소통과 직결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4-3. 타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인물의 비판적 사고 역량

명은이 혜진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 성찰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에는 비판적 사고 역량이 작용한다. 혜진의 솔직한 글쓰기는 독자의 위치로 자리바꿈한 명은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했고, 명은 역시 진실된 태도로 글을 쓰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 “손녀로부터 온 편지”를 통해 자기 배려를 시도하고, 고민 끝에 대상 수상을 취소한 명은은 비로소 진정성 있는 자기 관계 맺음을 행할 수 있게 되는데 명은의 변화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은 명은이 자신의 글을 언덕에 올라 땅에 묻는 장면이다. 영화의 제목인 ‘비밀의 언덕’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에서 명은은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올라 가만히 앉는다. 해질녘의 하늘을 배경으로 앞은 명은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울먹이는 표정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있다. 그리고 명은은 원고지의 글을 다시 읽는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는

50) 미셸 푸코, 앞의 책, 2016, 169쪽.

행위에는 고도로 성숙된 자기 배려가 담겨있다. 자기를 마주하는 용기를 낸 명은은 솔직한 마음을 담아낸 자신의 글쓰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그 글을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한 스스로를 확신의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명은은 마치 관을 묻듯이 땅에 원고지를 묻는다. 사실 이 글은 이미 심사위원도 읽었고 애란에게는 자신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기에 완벽한 비밀은 아니다. 그럼에도 글을 읽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엄마, 아빠, 오빠가 아직 읽지 않았고(물론 글만 읽지 않았을 뿐이지 오빠의 말처럼 이미 엄마, 아빠는 명은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명은은 그 비밀을 땅에 묻어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명은이 언덕에 올라 묻은 것은 가족이 창피한 모습을 지녔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을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인데, 명은은 이와 같은 자기 감정을 직시하고 인정함으로써 성장의 계기를 맞이한다. 이 변화가 가능한 것은 친구인 혜진이 보여준 삶에 대한 태도와 자신과는 다른 글쓰기 방식 때문이었다. 명은은 혜진의 관점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배척했지만 이내 그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삶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하였다.

명은의 변화를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은 시상식 장면이다. 혜진 자매는 “우리는 진짜 이란성 쌍둥이가 아닙니다”로 최우수상을 받고, 명은은 대상 수상은 포기했지만 가족의 의미를 강조한 “Happy birthday to 가족”으로 입선을 받는다. 입선인 명은과는 달리 혜진 자매는 트로피를 받고 수상도 단독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에도 트로피를 들고 중앙에 서는 혜진과는 다르게 종이 상장을 든 명은은 다른 여러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양 옆으로 밀려나 서게 된다. 명은은 가장자리에 있으며 그곳은 스포트라이트 없이 어두운 곳이다. 앞에 선 아이에게 가려질 수도 있는 자리이다. 예전의 명은이라면 중앙에 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창피하게 여겼겠지만

지금의 가장자리는 명은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자리이자 그 선택에는 자신의 솔직함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명은은 누구보다 표정이 밝다. 이 장면에서 혜진 자매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상징적으로 명은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큰 역할을 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혜진의 중앙 자리가 명은이 선망해야 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이다. 즉 명은은 자기 배려의 자세로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대상 수상에 버금가는 보상을 받았으며 그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성찰했을 것이다. 따라서 명은은 혜진이라는 타자로 인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그 타자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정리하면 4-3.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은 외부의 자극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주체적인 관점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독자는 명은과는 다른 글쓰기 방식을 사용하는 혜진이라는 인물의 등장, 그리고 혜진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명은의 인물형을 보며 비판적 사고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

덧붙여 자기 배려의 측면에서 타자를 통한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배려가 항상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기 때문인데, 타자와의 만남은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자기 배려의 특성에 부합한다. 푸코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삶에 대한 단순하고 일시적인 준비가 아니라 삶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ad se convertere)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자기로 되돌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활동을 뜻한다.⁵¹⁾ 따라서 문학교육에서 타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인물형은 항상적인 자기 배려를 일깨운다는 점에서

51) 위의 책, 113쪽.

더욱 중요하다.

5. 나오며

영화에는 명은이 달리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온다. 담임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고심해서 고른 후 장식으로 붙인 금색 포장 꽃을 바꾸기 위해 다시 문구점으로 가는 내리막길에서, 반장으로 당선이 되어 자신이 유세에서 사용한 비밀 우체통을 한 팔로 끌어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모님께 당선 사실을 알리러 가는 길에서, 교내 환경 보전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장을 품에 안고 부모님께 수상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서, 오랜 가출 끝에 가족에 대한 글로 상을 받아 다시 시장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명은은 달리고 또 달린다. 도착해서 숨을 몰아쉬는 그녀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내던질 만큼 애쓰는 사람 특유의 설렘이 느껴진다. 명은의 달리기에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그냥... 선생님은 핑크색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빠르게 알리고 싶음)과 자기 자신의 인정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이 공존하며, 그녀는 두 가지 마음을 모두 숨기지 않는다. ‘쓰는 인간’의 자기 배려에 초점을 맞춘 이 논문은 시종 명은의 글쓰기 장면을 분석했지만 그녀의 글쓰기가 끝나는 지점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호흡이 가쁜 달리기 역시 명은이 자기와의 관계 맺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공감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문은 글쓰기를 통해 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비밀의 언덕>의 작중인물 명은이 나타내는 특징을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자기 배려를 실천하는 인물이 지닌 문학교육적 의의를 규명하였

다. 글 쓰는 행위가 지니는 특성은 인간 본연의 자기 이해와 자기표현 욕구에 맞닿아있다. 문학교육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목표로 하므로 글 쓰는 인물형은 유용한 교육 제재가 된다. 명은의 자기 배려 양상은 다음과 같다. 명은은 자기 배려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채택하여 가족에 대한 비밀을 숨기거나 또는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발견에 이르게 된다. 담임 교사 애란과는 편지 쓰기를 통해 수치심을 고백함으로써 타자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자기 배려의 또다른 측면을 경험한다. 명은의 기존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혜진과의 만남을 통해서서는 비판과 투쟁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기 배려를 실현한다. 4장에서 살펴본 자기 배려형 인물의 문학교육적 의미는 자기 결정 역량, 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자기서사 쓰기를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자기 결정 역량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능력이다. 편지 쓰기와 관련된 소통 역량은 자기 배려를 전제로 하여 진실된 태도로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을 가리킨다. 타자의 글쓰기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은 외부의 자극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주체적인 관점을 습득하는 것을 뜻한다.

영화 속 '쓰는 인간'의 자기 배려 양상을 분석하고 문학교육적 의미를 도출한 이 연구는 자기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인간 성장의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는 사례를 작중인물의 글쓰기를 통해 살펴보고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자의 역량 요소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푸코가 인정했듯이 자기 배려의 준칙과 테크닉은 명확한 규명이 어렵고 문화와 제도, 역사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⁵²⁾ 자기 배려의 수단으로 꼽히는 글쓰기의 효용 역시 항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 한계점을 보완해가겠다.

52) 위의 책, 210-211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지은 감독, <비밀의 언덕>, 2023.

2. 논문과 단행본

강미정, 「문학교육 현장에서의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 활용과 그 전망 - 20대 중반 대학원생의 자기서사탐색사례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제44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39-72쪽.

김석완, 「미셸 푸코의 소크라테스 해석과 자기 배려의 교육」, 『교육철학연구』 제46권, 한국교육철학학회, 2009, 25-46쪽.

김은하, 「여성 정병려의 소수적 감정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78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17-550쪽.

김정신·채연숙, 「푸코의 자기 배려 이론으로 본 자기 성찰 글쓰기 탐색1 - K대학교 <대학 글쓰기> 수강생들의 내러티브 글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4권 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275-296쪽.

박수진, 「푸코의 자기 배려이론에 기초한 시나리오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지역과 세계』 제46권 1호, 사회과학연구소, 2022, 135-169쪽.

성하영, 「영화 「설국열차」에 대한 교육적 분석: 푸코 사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3권 1호, 인문사회 21, 2022, 71-82쪽.

신동훈, 「문학을 통한 '나'라는 문학의 발견과 미적 실현- 자기서사를 축으로 한 문학의 탐구와 교육 -」, 『문학교육학』 제84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24, 151-207쪽.

안상원, 「자기 배려로 살펴본 정신장애 에세이의 서술 양상 연구 - 리단,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와 정지음, 『젊은 ADHD의 슬픔』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21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2, 141-171쪽.

양근용, 「자기 배려로서의 글쓰기」, 『인문학연구』 제18권,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3-21쪽.

이연수, 「자기 배려 방법으로서 자기탐구보고서 쓰기 사례연구」, 『초등도덕교육』 제

- 60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7-230쪽.
- _____, 「초등학생용 자기 배려 척도(SSC) 개발 및 타당화」, 『윤리교육연구』 제58권, 한국윤리교육학회, 2020, 61-86쪽.
- 이주호·조상식, 「미셸 푸코의 '자기 배려' 개념과 교육적 담론의 복원」, 『교육철학연구』 제36권 1호, 한국교육철학학회, 2014, 99-118쪽.
- 이지은·김혜리·김혜정·김중혁, 『비밀의 언덕 각본집』, 클, 2024.
- 이혜경, 「노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의미 연구 -인문도사지원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영주어문』 제41권, 영주어문학회, 2019, 529-552쪽.
- 정규영, 「미셸 푸코의 '자기 배려'와 근대교육」, 『한국교육사학』 제43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2021, 159-196쪽.
- 정민승, 「평생교육의 두 얼굴, 통치기술과 자기 배려: 푸코 이론의 적극적 전유를 위하여」, 『평생교육학연구』 제27권 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21, 1-24쪽.
- 정병기, 「영화 <버닝>에 나타난 인간 존재론적 예술관」, 『현대영화연구』 제 15권 2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9, 101-120쪽.
- 채희주·민경원, 「이창동 영화에 표현된 개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122-129쪽.
-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동녘, 2016.
- _____,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말하기』, 오트르망 심세광·전혜리 역, 동녘, 2024.
- _____, 『주체의 해석학: 1981-1982,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 Ælius aristide, Discours sacrés, trad. fr. A.-J. Festugière, Paris, Macula, 1986.
- Foucault, M., "Les techniques de soi", *Dits et écrits II: 1976-1988*, éd. D. Defert et F. Ewald, avec la collaboration de J. Lagrange, Paris, Gallimar, 2001.
- Sénèque, L. A., *Lettres à Lucilius, t. II, V*, trans. H. Noblot, Paris, Les Belles Lettres, 1945.

630 대중서사연구 제31권 1호

3. 기타자료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15.

_____,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22.

Abstract

The Aspects of Self-care of 'A human being who writes' and Its Meaning in Literary Education - Focusing on the Film *The Hill of Secrets*

Hong, In-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yeong-eun, a character in the film *The Hill of Secrets*, which deals with the story of a character growing through writing, through Foucault's theory of self-care, and to clarify the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 character who practices self-c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 of writing or the existence of a writer are in line with the inherent desire for self-understanding and self-expression of humans. Since literary education aims for a broad understanding of humans and the world, the character type of writing is a useful educational material. At this time, Foucault's theory of self-care is suitable for analyzing the aspect of the 'a human being who writes' in the film because it considers writing as an important means.

After a theoretical review in Chapter 2, Myeong-eun's self-care aspects are analyzed in Chapter 3, and the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of a character who practices self-care is proposed in Chapter 4. First, Myeong-eun adopts writing as a method of self-care to hide or express secrets about her family, and in the process, she reaches self-discovery. Myeong-eun experiences another aspect of self-care, which is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through exchanging letters with her homeroom teacher, Ae-ran, and confessing her shame. Through the encounter with Hye-jin, who causes a rift in Myeong-eun's existing world, she realizes self-care that performs the functions of criticism and struggle from the position of a 'A human being who reads'. Next, the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of characters who show self-care like Myeong-eun was discussed with a focus on competency.

These are self-determination competency,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Self-determination competency, which can be cultivated through writing an autobiography, refers to the ability to decide one's own way of life. Communication competency, which involves writing in the form of letters, is the ability to relate to others with a genuine attitude, based on self-care.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which involves reflecting on oneself through the writing of others, means actively recognizing external stimuli and acquiring a subjective perspective.

The character type of 'a human being who writes' faithfully expresses desires through writing, and practices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oneself and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which are the core of self-care. Self-care through writing is a way of life that is in line with the universal principles necessary for human growth, and therefore, works featuring characters who demonstrate self-care have literary educational value.

(Keywords: Writing, A human being who writes, Self-care, *The Hill of Secrets*, Character, Literary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5년 01월 08일

심사완료일 : 2025년 02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5년 02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02월 19일